
2022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2.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22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22. 5. 11.(수) 10:00 ~ 10:40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지준연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 (2022-21) : (도로계획과-20681) 은평새길,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 조치방안
 - (2022-22) : (교통정책과-1106) 강북횡단선 등 4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사항 제출
 - (2022-23) : 해당 기자의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출입내역 정보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2-21) : 기각 - 비공개
 - (2022-22) : 기각 - 비공개
 - (2022-23) : 기각 - 비공개

【 개 회 】

〈000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000입니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그리고 000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이번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이의신청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각 안건 간사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응답,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2-21 이의신청 】

안건명 : (도로계획과-20681) 은평새길,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 조치방안

〈000 위원〉

-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1호 도로계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 나오셨습니까?

〈000 팀장〉

- 첫 번째 소관부서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장 000입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모두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4일 0000조합이 도로계획과-20681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26일에 일부 부분공개 하신 걸로 이렇게 문서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000 팀장>

-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는 바로 그날 당일에 이의신청이 이렇게 와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000 팀장>

- 맞습니다.

<000 위원>

- 그에 해당되는 문서가 저희에게 보내주신 도로계획과-20681이라고 하는 문서이고요. 총 아마 4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문서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000 팀장>

- 맞습니다.

<000 위원>

- 이 문서에 이렇게 뭐라 그러냐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000 팀장>

- 처음에 저희가 문서를 생성할 때부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했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부분공개 하는 걸로 최대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하는 걸로 해서 문서를 생성을 했고요.

추가로 부분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란색으로 처리해서 최초로 비공개 하기로 한 일부 부분 외에는 추가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노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일부 비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000 위원〉

- 이 문서 중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는 걸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 청구자가 신청했을 때에도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를 하신 건가요?

〈000 팀장〉

-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이나 이런 쪽에 이익이 돌아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게 있을까요?

〈000 팀장〉

- 두 가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외부검토 문서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두 가지 도로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당초에 일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노선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저희가 기각 요청한 근거 외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업수익률 같은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가능한 기존의 추진경위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공개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노선이 공개됨으로써 사업 진행에 새로운 민원이나 각 위치별 지역주민들의 민원, 혹은 부동산

사전투자 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000 위원〉

- 그림 문서의 내용 중에 민간사업자의 어떤 영업비밀, 기술의 노하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000 팀장〉

- 1페이지에 있는 사업수익률에 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000 위원〉

- 이 표에서 아래에 있는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000 팀장〉

-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민간사업자 부분하고 관계있는 영역은 없나요?

〈000 팀장〉

-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부검토 중인 노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을 검토하고 이번 문서를 생성한 이후에 한 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한지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노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선이 정리가 되면 그 후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들의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검토 과정 중에는 비공개를 했으면 하는 게 저

회의 입장입니다.

<000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지도들이나 어떤 그림들 이게 다 변경이 가능한 노선들이고, 또 이것들이 공개될 경우에 주변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이신 건가요?

<000 팀장>

- 맞습니다.

<000 위원>

- 노란색으로 해 주신 부분 중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흑시 있을 수 있을까요?

<000 팀장>

-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 걸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전체공개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문의 다 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담당 팀장님은 잠깐 좀 나가 계시고요. 저희가 의논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팀장 퇴장)

그러면 먼저 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이 내용은 아직은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요. 또 질의응답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 KDI의 적격성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면,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지난 과정상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주민들이 000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아마 주민들에게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갈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무래도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고, 공개가 되었을 때 적절한 업무수행이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요. 청구를 기각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00 위원>

- 일단 기각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000 위원님.

<000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이유로 5호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00~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오픈했다가는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으로 기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다 의견이 동일하고.

담당 팀장님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팀장 입장)

저희가 합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00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2-2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팀장님, 이게 공개일정이 아까 확정이 되면 공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

제쯤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000 팀장〉

- 적격성 재조사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 전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예정일이 대충 잡혀져 있는 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능한 겁니까?

〈000 팀장〉

- 네, 적격성 재조사가 구체적으로 일정을 특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비공개, 기각 결정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공지를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000 팀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2-22 이의신청 】

안건명 : (교통정책과-1106) 강북횡단선 등 4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사항 제출

〈000 위원〉

- 두 번째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호 교통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담당자님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주무관〉

- 서울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000입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인데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사항 제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분은 공문서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건가요?

〈000 주무관〉

- 그 부분은, 이 공문서의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한 질의문하고요. 저희가 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같이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거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이 대단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요청한 자료, 공문은 전혀 공개가 안 됐습니까? 비공개 결정하면서. 이 공문서.

〈000 주무관〉

- 맞습니다.

〈000 위원〉

- 글썄, 이거는 지금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 아닐까요?

〈000 주무관〉

-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서요. 만약에,

〈000 위원〉

- 그거는 아는데,

〈000 주무관〉

- 진행이 끝났으면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에서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질의사항 같은 경우도 기재부에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 자료도 있겠지만 타 기관에서 받은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000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청구인이 알고 싶은 게 공문서 말고 관련자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문서제목으로 해서 교통정책과-1106 이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이 내용은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 자체를 알려주는 것도 지금 예비타당성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그냥 뭐,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있습니까?

<000 주무관>

- 본문이요?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공문서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를 한 거고요. 청구인께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불임에 나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달라라는 겁니다.

<000 위원>

- 불임사항에 대해서 지금 청구한 겁니까?

〈000 주무관〉

-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이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지금 방대하고 이걸 지금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내용을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아시는지요.

〈000 주무관〉

- 일단은 법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에서 1년 반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끝날 건데 그건 저희도 자세한 건 모르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000 위원〉

- 불확실하다는 말씀이군요, 아직은.

〈000 주무관〉

- 맞습니다.

〈000 위원〉

-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일단은 질문 없습니다.

<000 위원>

- 저 질문사항 있습니다.

<000 위원>

- 000 위원님.

<000 위원>

- 저희 보내주신 폴더에 5번으로 매겨진 자료가 지금 심의대상 문서는 맞는 건가요? 이게 공문에 붙임1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000 주무관>

- 맞습니다.

<000 위원>

- 왜냐하면 이 5번 문서를 보면 이건 사실 질의답변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제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이걸 비공개하신 게 맞나요? 이거를 제가,

<000 주무관>

-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계획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열차운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거장 위치라든가 아니면 정거장을 어떻게 개선을,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치했는지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거는 조금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000 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

<000 주무관>

- 그다음에 아직 이게 진행 중인 거고요. 조사 중인 사항이어서요.

<000 위원>

- 조사가 진행 중인 거는 알고 조사내용이 비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문서에는 사실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2페이지에 노선별 수요 조금, 선 이름이 나오는 것 그 정도 말고는 이 문서는 그냥 제목만 나와 있는 거라서 사실 사업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문서 같거든요.

<000 주무관>

- 그래서 질문 자체도,

<000 위원>

- 내부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신 거를 심의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분명할 것 같은데 이 5번 문서는 실제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000 주무관〉

- 이 질문 자체도 이 질문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질문 자체를,

〈000 위원〉

- 작성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 주무관〉

- 네, 이 질문 자체를 기재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단순히 작성자가 누구이냐, 외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정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면 다 심의대상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서에도 만약에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 사업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00 주무관〉

-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질문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구분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000 위원〉

- 예를 들어 첫 페이지에서 비공개되어야 될 사안이 있을까요?

〈000 주무관〉

- 첫 페이지에 보면 사전용역 관련한 성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라서 비공개문서고요, 지금.
거기 보면 내역서랑 수량산출서, 그다음에 종평면도 이런 것들이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거든요.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 문서 자체, 별첨문서가 아니라 이 한 PDF 1페이지에서 비공개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000 주무관>

- 저희가 이런 질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000 위원>

- 일단 아까 설명을 계속 동일하게 지금 하시기 때문에.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질문 지금 하신 내용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000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페이지 이야기하신 거는 5번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공개된 심의대상 자료.

<000 위원>

- 네.

〈000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1페이지 지금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는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특정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게 보니까 파일이 엄청 많아서 이거를 별첨문서로 된 내용을 분류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를 하는 데 행정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그거인데 혹시 더 명확히 한 번씩 더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000 위원〉

- 일단 주무부서 입장은 어떤 의견이신지 알겠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담당자님 잠깐만 나가 계시고요. 저희가 잠깐 의논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우선 제가 먼저 검토를 했으니까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분공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확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뭐를 주장하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서 별첨문서 전부 다룰 요구를 해서 공문서 2번 관련서류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가장 요즘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청구인의 주장을 선의로 해석해서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서 보면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서로, 청구인의 이익이 뚜렷히 드러나 있지 않아서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고.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게 확정되면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각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와 관련해서 000 위원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도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웬만하면 뭐라도 일부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000 위원님.

〈000 위원〉

- 일단 청구하는 범위가 불명확하기도 하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타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정보공개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해서 이게 사실은 지가상승이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적인 견해를 받은 것처럼 해서 소위 업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악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부동산 건설 쪽을 좀 많이 해 보다 보면 이런 걸 근거자료로 해서 물건지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면에서도. 일단 범위도 모르겠고요, 뭘 요청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라서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000 위원>

- 저는 일단 청구인께서 공개 요청하신 내용은 이 본문에 붙임자료1, 2인 것 같은데 붙임자료2는 저희 지금 심의회의에 제공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2는 안 된 것 같고, 붙임1이 지금 5번 문서인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서에 보면 아까 질문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타조사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이 별첨자료는 저도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심의회의에 제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5번으로 제공해 주신 이 11페이지 문서는 그냥 질의 및 그걸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이어서 저는 이걸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사업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 만약에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부 제외할 수는 있을 것인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걸 전혀 구별을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조치계획은 공개되어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결국 부분인용 정도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000 위원>

- 네.

<000 위원>

- 부분인용 의견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님 들어오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 청구인이 누구인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000 주무관>

- 네, 저희가 그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000 위원>

-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000 주무관>

- 그런데 통상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다들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이 돼서 자기네 블로그나 부동산에 다 올려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명을 하기가 좀 바빠요. 그건 이제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000 위원〉

-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자체가 강북지역에 굉장히 길게 걸쳐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00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2-2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2-23 이의신청 】

안건명 : 해당 기자의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출입내역 정보

〈000 위원〉

- 세 번째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3호 총무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 나와 주셨습니까?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주무관〉

- 서울시청 총무과 000입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일단 주신 자료 바탕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특정 언론기자의 출입기록 내역인데요. 지금 이걸 서울시가 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맞나요? 다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00 주무관>

- 출입기록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여기에는 그냥 예시파일만 주시고 실제로 이 기자의 출입기록 내역을 저희 심의회의에 제공하지는 않으셨는데 별도로 보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000 주무관>

- 저희가 6개월간 출입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이 청구인께서는 청구하실 때 기간도 특정하셨는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000 주무관>

-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이거를 다 동의를 받고 기록해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000 주무관>

- 저희는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일단 간단한 사항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릴 것은 없는데 저희 심의대상이 되는 문서를 사실 제공해 주시지 않은 것이어서요. 그래도 제공을 해도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 말고는 추가질문 드릴 것은 없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000 주무관>

- 일단 청구인께서 저희 직의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의문을 가지고 감사결과서나 특정 기자에 대해 출입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건 지금 출입기록, 그러니까 출입내역 정보를 저희 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기록이 그 기자에 대한 개인,

<000 위원>

-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게 있는지요.
내부감사라든가,

〈000 주무관〉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한 내용 자체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감사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부존재로 통지한 내용이 제가 제공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이미 제공한 사람이 있냐 여부를 묻는 질의형식이어서 그 부분은 부존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출입기록 내역만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그 기사가 실린 거는 참고자료 요건으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경자료로 활용해서 심의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일단 자료에 대해서 여쭙던 거는 아닌데. 감사가 있기는 있었던 건 맞습니까?

〈000 주무관〉

- 네. 그거 관련해서는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결과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없으면 일단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논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지금 자료공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아마 다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우선 000 위원님부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출입기록 관리 관련해서 다른 규정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출입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규정에 이런 것까지도 동의를 받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6호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의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 기각 의견을 드립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기각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0 위원님께서도 기각 의견 주셨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내용도 같고요.

기각입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저도 기각 의견이고, 주심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비공개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6호가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 아까 제가 감사에 관한 것도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감사 부분은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나요?

<000 주무관>

- 이게 저희 심의안건 올린 거 자체가 출입기록만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000 위원>

- 거기까지는 확대하기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2-2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0 주무관>

- 위원장님, 회의 종료 전에 제가 마지막 안건 여쭙보고 싶은 게 저희가 안건 상정은 1호랑 6호 사유로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000 위원>

- 1호도 올라왔습니까?

<000 주무관>

- 네, 타 법령상 비밀이라고 해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랑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6호 말고 1호도 아까 보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도 같이 비공개 사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는 1호하고 6호 이렇게 해서 사유를 근거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으로 기각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주무관>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오늘 새로 참석하신 000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회의가 순조롭게 빨리 마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6월 회의는 저희가 같이 얼굴을 보고 대면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이것으로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회의 종료】